


# 이펙티브 자바 CP.9

🕒 작성 일시	@2023년 3월 16일 오후 10:42
🕒 최종 편집 일시	@2023년 3월 18일 오후 9:22
📄 유형	이펙티브 자바
👤 작성자	 종현 박
👥 참석자	
🗣️ 언어	

## 9 예외

- 69. 예외는 진짜 예외 상황에만 사용하라.
- 70. 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검사 예외를,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라
- 71. 필요 없는 검사 예외 사용은 피해라
- 72. 표준 예외를 사용하라
- 73.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를 던져라
- 74. 메서드가 던지는 모든 예외를 문서화하라
- 75. 예외의 상세 메시지에 실패 관련 정보를 담으라
- 76. 가능한 한 실패 원자적으로 만들라
- 77.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

## 9 예외

### ▼ 69. 예외는 진짜 예외 상황에만 사용하라.

- 예외
  - 제대로 사용한다면 프로그램의 가독성, 신뢰성, 유지보수성이 높아진다
  - 하지만 반대로, 잘못 사용하면 그 반대의 효과를 보게 된다.
- ex) 예외를 잘 못 사용한 예

```
try {
    int i = 0;
    while(true)
        range[i++].climb();
}
```

```
} catch (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 e) {  
}
```

- 전혀 직관적이지 않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. (아이템 67)
- 무한 루프를 돌다가 배열의 끝에 도달해 에러가 발생하면 끝을 내는 것이다...
- 표준적인 관용구 표현으로는  
`for (Mountain m : range) m.climb();` 이다.
- 예외를 써서 루프를 종료한 이유
  - JVM 은 배열에 접근할 때마다, 경계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데, 일반적인 반복 문도 배열 경계에 도달하면 종료한다. 따라서 이 검사를 반복문에도 명시하면 같은 일이 중복됨으로 하나를 생략한 것이다.
  - 하지만 이는 3 가지 면에서 잘못된 추론이다.
    1. 예외는 예외 상황에 쓸 용도로 설계되었으므로 JVM 구현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검사만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동기가 약하다. (최적화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)
    2. 코드를 `try-catch` 블록 안에 넣으면 JVM이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가 제한된다.
    3. 배열을 순회하는 표준 관용구는 앞서 걱정한 중복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. JVM이 알아서 최적화해 없애준다.
  - 즉, 예외를 사용한 쪽이 오히려 더 느리게 동작한다.
- 예외를 다른 곳(진짜 예외가 아닌 경우)에 사용한 경우
  - 코드를 헛갈리게 하고 성능을 떨어뜨린다.
  - 심지어,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.
  - 반복문 내 버그가 숨어 있다면 흐름 제어에 쓰인 예외가 이 버그를 숨겨 디버깅을 어렵게 할 것이다.
- 예외는 오직 예외 상황에서만 써야 한다.  
절대로 일상적인 제어 흐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.
- 잘 설계된 API 라면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제어 흐름에서 예외를 사용할 일이 없게 해야함.
  - 특정 상태에서만 호출 할 수 있는 '상태 의존적 메서드'를 제공하는 클래스는, '상태 검사 메서드'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.

- `Iterator` 인터페이스의 `next` (상태 의존적 메서드), `hasNext` (상태 검사 메서드)

```
for (Iterator<Foo> i = collection.iterator(); i.hasNext(); ) {
    Foo foo = i.next();
    ...
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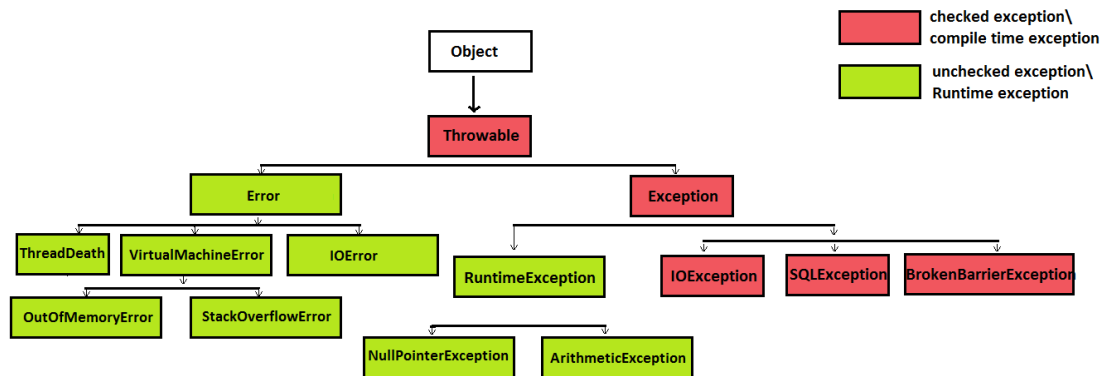
- 만약, `hasNext` 가 없다면

```
try {
    Iterator<Foo> i = collection.iterator();
    while(true) {
        Foo foo = i.next(0);
        ...
    }
} catch (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 e) {
}
```

- 굉장히 맨 처음 ex 과 비슷해보인다.
  - 반복문에 예외를 사용하면 상황하고 헷갈리며 속도도 느리고,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 버그를 숨기기도 한다.
- 상태 검사 메서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.  
올바르지 않은 상태 일 때 빈 옵셔널 (아이템 55), 혹은 `null` 같은 특수 값 반환
    1. 외부 동기화 없이 **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** 할 수 있거나, **외부 요인으로 상태가 변할** 수 있다면 옵셔널이나 특정 값을 사용한다.  
상태 검사 메서드와 상태 의존적 메서드 호출 사이에 객체의 상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    2. 성능이 중요한 상황에서 **상태 검사 메서드가 상태 의존적 메서드의 작업 일부를 중복** 수행한다면 옵셔널이나 특정 값을 선택한다.
    3. 다른 모든 경우엔 상태 검사 메서드 방식이 조금 더 낫다.  
가독성이 더 좋고, 잘못 사용시 발견하기 쉽다.  
상태 검사 메서드 호출을 하지 않았다면 상태 의존적 메서드가 예외를 던져 버그를 들어 낼 것이다. 반면 특정 값을 검사하지 않고 지나쳐도 발견하기 어렵다.  
(옵셔널은 해당하지 않는 문제)

## ▼ 70. 복구할 수 있는 상황에는 검사 예외를, 프로그래밍 오류에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라

- 자바가 문제 상황을 알리는 타입
  - java 예외



- 검사 예외 (checked exception / compile time exception)
- 비 검사 예외 (unchecked exception / Runtime exception)
  - 런타임 예외
  - 에러
- **검사 예외**
  - 호출하는 쪽에서 복구하리라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사용한다.  
이는 검사와 비검사 예외를 구분하는 기본 규칙이다.
  - 호출자가 그 예외를 `catch` 로 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전파하도록 강제하게 된다.  
따라서 메서드 선언에 포함된 검사 예외 각각은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력한 결과임을 API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.
  - API 설계자는 API 사용자에게 검사 예외를 던져주어, 그 상황에서 회복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.
  - 물론 사용자는 예외를 잡기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, 이는 좋지 못하다. (아이템 77)
  - 일반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조건일 때 발생하므로, 호출자가 예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서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. (아이템 75)
- **비검사 예외**

- 런타임 예외, 에러
- 둘 다 동작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.  
프로그램에서 잡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통상적으로는 잡지 말아야 한다.
- 프로그램에서 런타임 예외나 에러를 던졌다는 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더 실행해봤자 손해가 더 많다는 뜻이다. 이런 `throwable` 을 잡지 않은 스레드는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뱉으며 중단된다.

## • 런타임 예외

- 프로그래밍 오류를 나타낼 때는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.
- 런타임 예외의 대부분은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발생된다.
- 전제 조건 위반란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해당 API 의 명세에 기록된 제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.
  - 배열의 index 는 `0 ~ array.length() - 1` 사이 이다
  - `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` 이 발생했다는 뜻은 이 전제 조건을 어긴 것이다.

## • 예외

- 보통은 JVM의 자원 부족, 불변식 깨짐 등 더 이상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
- 자바 언어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, 널리 퍼진 규약으로 `Error` 클래스를 상속해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자제하기 바란다.
- 즉, 구현하는 비검사 `throwable` 은 모두 `RuntimeException` 의 하위 클래스여야 한다.
- `Error` 는 상속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, `throw` 문으로 직접 던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.
- 이상 조건에서 문제가 있다면,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, 오류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.
  - 예를 들어 자원 고갈은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배열을 할당해 생긴 프로그래밍 오류 일 수도 있고, 진짜로 자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.
  - 만약, 자원이 일시적으로만 부족하거나 수요가 순간적으로만 몰린 것이라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.
  - 따라서 해당 자원 고갈 상황이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는 API 설계자의 판단에 달렸다.

- 복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검사 예외를, 아니라면 런타임 예외를 사용하자.
- 확신하기 어렵다면, 비검사 예외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. (아이템 71)
- **throwable 절대 사용하지 말자.**
  - **throwable** 은 정상적인 검사 예외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으면서 API 사용자를 헛갈리게 한다.

## ▼ 71. 필요 없는 검사 예외 사용은 피해라

- 검사 예외
  - 제대로 활용하면 API 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.
  - 결과를 코드로 반환하거나 비검사 예외를 던지는 것과 달리, 검사 예외는 발생한 문제를 프로그래머가 처리하여 안전성을 높이게끔 해준다.
  - 과하게 사용하면, 오히려 쓰기 불편한 API 가 된다.
  - 메서드가 검사 예외를 던질 수 있다고 선언했다면, 이를 호출하는 코드에서는 catch 블록을 두어 그 예외를 붙잡아 처리하거나 더 바깥으로 던져 문제를 전파해야 한다.
  - 어느 쪽이든 API 사용자에게 부담을 준다.
  -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는 스트림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다. (아이템 45 ~ 48)
- 사용하면 좋을 때
  - API 를 제대로 사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 예외
  - 프로그래머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
  - **하지만,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검사 예외를 사용하자**
- 하나의 검사 예외만 던질 경우
  - API 사용자는 try 블록을 추가해야 하고 스트림에서 직접 사용 불가능해진다.
  - 회피하는 방법
    - 적절한 결과 타입을 담은 옵셔널을 반환하는 것이다. (아이템 55)  
검사 예외를 던지는 대신 단순히 빈 옵셔널을 반환하면 됨  
하지만, 예외 발생 이유를 알려줄 정보를 담을 수 없음.
    -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를 2개로 쪼개 비검사 예외로 변경할 수 있다.

ex) 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, 상태 검사와 비검사 예외를 던지는 메서드

```
// 리팩터링 before
try {
    obj.action(args);
} catch (TheCheckedException e) {
    ... // 예외 상황에 대처
}

// 리팩터링 after
if (obj.actionPermitted(args)) {
    obj.action(args);
} else {
    ... // 예외 상황에 대처
}
```

- 리팩터링 후 로직의 단점
  - 모든 상황에 적용 불가
  - 외부 동기화 없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거나, 외부 요인에 의해 상태가 변할 수 있다면 Thread-Safe 하지 않다.
  - `actionPermitted`, `action` 메서드가 작업 일부를 중복 수행한다면, 성능에서도 손해
- 정리
  - 필요한 곳에서 검사 예외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인다. 남용하면 쓰기 어려운 API를 만든다.
  - API 호출자가 예외 복구를 할 수 없다면 비검사 예외를 던지자.
  - API 호출자가 예외 복구를 할 수 있고, 해주길 바란다면 옵셔널을 반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. 옵셔널로 상황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없을 때만 검사 예외를 던지자.

## ▼ 72. 표준 예외를 사용하라

## ▼ 73. 추상화 수준에 맞는 예외를 던져라

## ▼ 74. 메서드가 던지는 모든 예외를 문서화하라

## ▼ 75. 예외의 상세 메시지에 실패 관련 정보를 담으라

## ▼ 76. 가능한 한 실패 원자적으로 만들라

## ▼ 77.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